젊은작가포럼

한국작가회의

2019 통권 121호

한국작가회의 회보 통권 121호(2019년 7~8월호)
발행인 이경자 편집위원 김서령(위원장) 권민경 정미영 최예지 고은규(편집장)
발행일 2019년 9월 30일 발행처 (사)한국작가회의 03965 서울시 마포구 성산로 128(마포중앙도서관) 5층
홈페이지 http://www.hanjak.or.kr 전화 02)313-1486 전송 02)2676-1488 제작 청색종이

책의 콘텐츠가 발현되는 곳

경의선 책거리

GYEONGUI LINE
BOOK STREET

경의선 책거리 시즌2 오프닝 전시회

한국작가회의 올해의 작가展

2019. 10. 09 ~ 2019. 10. 13 | 문화산책

운 영

화요일 - 일요일 (월요일 휴관)
오전 11시 - 오후 8시
경의선 홍대입구역 6번 출구

주최 | 마포구
주관 | 경의선 책거리 x 한국작가회의
gbookst.or.kr

목차

한국작가회의 회보 | 통권 121호(2019년 7~8월호) | 발행일 2019년 9월 30일 | 발행처 (사)한국작가회의
발행인 이경자 | 편집위원 김서령(위원장) 권민경 정미영 최예지 고은규(편집장) | 제작 청색종이

04 기획칼럼 아베 정권 시대의 도금 민주주의와 한일 시민 교류 김응교

06 열린공간 김용희를 살리자

08 시 입술을 닦을 때 서재진

09 시 이상기후 최백규

10 작은책방 스물세 살의 청년 불광문고 김경후

12 나의 첫 책 삶의 리듬을 파괴하는 것들에 대한 저항 강덕환

14 포토 에세이 최세운

16 동화 배가 빵빵하오 김바다

18 에세이 나는 그들의 팬이다 이은조

20 내 친구의 가게 공주국밥집에서 연잎밥을 만났을 때 안연옥

22 콩트 청춘 CEO 김요아킴

24 우리 지회 21년의 역사, 인천작가회의 이상실

26 작가회의 통신

28 사무처 소식

29 후원 및 연회비 납부 현황

30 회비 납부 현황

아베 정권 시대의 도금 민주주의와 한일 시민 교류

— 2019년 8월 2일의 기록

김응교

지난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은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을 자행한 신일본제철이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국가 간 청구권 협정이 이뤄졌다 해도 개인이 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었다. 올해 2019년 7월 초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지우겠다는 경제적 도발을 선언했다.

2003년 독도 도발 사태가 있었을 때 나는 도쿄에서 살고 있었다. 일본 해양 함선이 도쿄에 접근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한판을 불사하지 않겠다 하고, 일본 아침 방송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전쟁하면 24시간 안에 일본이 이긴다"며 패널들이 시뮬레이션을 보이며 말했다. 지금보다 더 심각했다.

2019년 8월 2일

2년에 한 번씩 하는 한일 작가대회를 1년 전부터 준비해왔다. 한국의 황순원, 박두진, 일본의 엔도 슈사쿠, 미우라 아야코의 정신으로 30년 가까이 교류해온 모임이다. 7월 초에 일본의 경제 도발 발표가 있었기에 갈지 안 갈지 고민을 했지만, 이럴 때일수록 작가 교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공항으로 갔다.

한국작가회의 국제위원장이기도 하기에, 나에겐 작가 교류에 대한 숙제가 있었다. 공항에서 내려 카루이자와에 오기까지 거리에서 식당에서 우리는 계속 우리말을 썼다. 불친절하게 대하는 일본인은 없었다. 일본인의 50~60%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자민당의 우민화 정책이 통한 듯 싶지만, 나머지 40~50%만 정치에 관심이 있고 이 중 확실한 극우들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지율이 70%까지 올라간다. 그러나 착시효과일 뿐 실제로는 20~30% 정도가 아베의 콘크리트 지지층일 뿐이다. 출판인 이치카와 상은 만나자마자 이럴 때일수록 더 자주 교류해야 한다고 했다.

8월 1일 개회식이 시작되고, 시바사키 시인의 인사는 무거웠다.

"이렇게 한일 관계가 어려운데 어려운 길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바사키 시인은 사회를 보다가 평화헌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마임이스트는 한일 관계 얘기를 하다가 아베는 빠가(바보)라는 말까지 했다. 혼다 시인은 전체 인사 때 시적인 말씀을 하셨다.

"지금 악한 세력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기는 없지만 한 송이 꽃 같은 시로 저항하려 합니다."

이 말을 마치고 앉았는데, 선생님의 눈시울이 떨리더니 눈물이 흘러나왔다. 그때 선생님께서 참고 참았던 말씀을 하셨다는 걸 느꼈다.

"한국은 우리의 친척입니다."

선언문이나 우리의 입장을 만들 수는 없었지만 충분히 마음을 공유했다. 모두 조금은 어두웠고, 반 아베 정서가 깔려 있었다.

8월 2일. 그날 밤 마치 전쟁을 체험하듯 나는 숙소에서 잠을 못 이루었다. 카루이자와에는 밤비가 내렸다. 오늘 아침 아베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뺐다. 잠을 못 자고 빗소리를 들으며 빈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하토리 시인은 문 대통령의 연설을 동영상으로 보며 잠 못 이루는 내게 와서 '아리가토'라고 수차례 말하면서, 일본이 사과해야 할 일이 많다며 악수하고, 포옹하고 돌아갔다.

여기까지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했던 8월 2일의 일본 풍경이다.

종형사회, 도금 민주주의와 보수방류

일본은 '종형사회'(타테샤카이, 縱社會)다. 사회의 삼각형 제일 위에 천황이 있고 그 밑으로 제정일치적 정치 구조가 있다. 이에 부합하는 〈일본회의〉를 기반으로 1955년에 자민당이 형성되었다. 쉽게 말하면, 일본 사회는 '오야붕'과 '꼬붕'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의 제일 위에 천황과 정치인이 있고, 그 아래 보통 사람들, 맨 밑에 사회적 소수자들이 존재한다.

학자들은 일본의 민주주의를 '도금 민주주의'라고 설명한다. 껍데기가 도금되었고, 알맹이는 중세형 계급 사회라는 뜻이다. 속은 철저하게 계급 사회인데 겉은 '멋진 신세계'처럼 화려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그 도금이 벗겨져 내부의 문제가 외부로 공격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천황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는 이들도 있지만, 이들은 굉장히 소수다.

한 가지 강조해야 할 것은, 천황이 종형사회의 정점에 있긴 하지만 현재의 천황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형' 같은 존재라는 사실이다. 천황은 상징일 뿐 아무런 정치적인 힘도 세력도 없는 것이다. 진짜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은 〈일본회의〉다. 이들은 전 세계 인류가 행복하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신이 만든 일본 황실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단체인데, 이들이 만든 것이 바로 아베 정권이다.

일본 정치 구조를 보면,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과 공명당이 정권을 잡고 있다. 자민당은 미국의 지원으로 만들어졌다. 특징적인 것은, 자민당은 야스쿠니 신사를 중시하고, 공명당도 〈창가학회〉 기반이라는 점에서 제정일치 구조라는 사실이다. 일본은 '정치적 종교' 또는 '종교적 정치'가 통용되는 독특한 나라다. 야스쿠니라는 조상 제사를 통해 국가 통합 체제를 이룬 국가다.

오늘의 자민당을 우리나라의 자유한국당쯤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보다 더한 보수수구당이다. 그야말로 종교적 파시즘 집단에 가까운 당이다. 지금의 일본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일본 공산당은 우리나라 정의당 정도, 사회당은 우리나라 더불어민주당 정도로 생각해야 한다.

일본의 보수 정치는 '보수본류'(保守本流)와 '보수방류'(保守傍流)로 구분할 수 있다. 자민당은 원래 보수본류로 그냥 우익이었다. 보수본류는 전쟁은 반대하는 대신 경제를 키우려고 했다. 그런데 메이지 시대의 제국주의 영화를 꿈꾸는 보수방류가 생겨났다. 오늘날에는 아베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를 필두로 한 보수방류의 후대가 정권을 잡고 있다.

내가 유학 갔던 1996년 고이즈미 총리 때부터 지금껏 보수방류가 힘을 떨쳐왔다. 이 보수방류는 일본과 한국 시민, 그리고 동북아시아에 위험 요소다. 현 아베의 전략은 한국을 상대하지 않고 세계와 상대하는 것이다. 한국을 무시하는 전략이다. 이런 종형사회와 보수방류의 우경화가 이번 사태의 근본 배경이다.

한일 시민연대의 가능성

다행히 아베 정권과 같은 보수방류에 대한 일본 시민사회 내부의 반발도 있다. 민주당 출신의 하토야마 전 총리나 기독교 신자들 중 일부는 보수방류에 반대한다. 또한 보수적 일본인들 중에는 평화헌법이 폐기되면 다시 군대에 가야 하고 전쟁을 하게 될 것에 대해 공포를 느끼는 이들도 있다.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는 지식인들도 있다. 우에무라 다카시는 한국보다 먼저 위안부 문제를 제기했고 일본 교과서에 윤동주의 시를 넣은 것을 이유로 우익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메이지가쿠인(明治学院)대학 학원장 나카야마 히로마사(中山弘正) 명예교수는 일제강점기 일본이 저지른 죄를 기록한 『전쟁책임, 전후책임 고백』이란 책자를 만들어 1995년 메이지가쿠인 전교생에게 나눠주기도 한 분이다. 이런 분들이 있기에 '단순한 반일'은 위험하다. 소수이긴 하지만, 이런 분들까지도 적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해방 이후 한일 시민연대 중 가장 돋보였던 것이 김지하 구명운동이었다. 그 후에 양국 시민연대가 뜸해지다가 2010년, 과거사 논쟁 때 1910년의 사건을 '한일병합' 대신 '일제침략'으로 표기하기 위한 지식인연대가 있었고, 도요타 자동차 노동문제나 쌍용자동차 사건 때도 한일 노동자연대가 있었다.

단 한일 시민연대 등 교류는 좀 더 세밀하게 해야 한다. 우리가 먼저 연대를 제안하면 오히려 일본 시민운동 단체들이 일본 사회에서 궁지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문제에서 당연히 한일연대를 할 수는 없다. 가령 교토에 윤동주 시비를 새로 세우는 문제에 일본 시민들은 일본 시민만의 힘으로 시비를 세우고 싶어 한다. 그 뜻이 옳다고 생각한다. 한일 시민연대를 할 때 다른 경우도 조심스럽고 매 경우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김응교 현 한국작가회의 국제위원장. 시집 『부러진 나무에 귀를 대면』, 평론집 『처럼-시로 만나는 윤동주』 『일본적 마음』 등이 있다.

① 7. 10일 작가연대문화제에 참석한 작가들과 집회 참가자들(김성장, 서안나, 전비담 시인 등)
② 7. 26일 작가연대문화제, 고공농성장 아래에서
③④ 7.10일 작가연대문화제, 김성장 시인 손글씨 퍼포먼스
⑤ 7.25일 김용희 노동자 고공단식투쟁 작가연대 문화제(나해철, 윤중목, 전비담 시인 등)
⑥ 9. 20일 삼성고공농성장에서 강연 중인 이도흠 평론가
⑦ 강남역 철탑에서 고공농성 중인 김용희 씨
⑧ 고공농성 86일차, 길거리 강연을 하고 있는 정우영 시인
⑨ 문화제를 진행하는 유현아 시인

강남역 사거리 20미터 CCTV철탑에서 6.10일부터 고공농성 중인 삼성해고노동자 김용희 〈작가연대문화제〉 및 〈길거리강연회〉에 한국작가회의 작가들이 3개월째 연대하고 있다. 6월 24일부터 개별적으로 시인들이 시낭송 문예연대를 하다, 6월 29일 자유실천위원회와 젊은작가포럼 주최 삼성해고노동자 고공투쟁 작가연대문화제를 시작으로 7월 27일, 김용희 노동자가 고공단식농성을 중단할 때까지 매일같이 작가들이 강남역 농성장 앞에 모여 시낭송을 비롯한 문화제를 진행했다. 아울러 8월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길거리강연회〉에는 작가회의 소속 작가들이 꾸준히 강연자로 참석해주고 있다.

삼성해고노동자 김용희씨는 90년대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다 납치, 감금, 테러, 부인 성폭행, 간첩조작 등 온갖 인권유린을 당하다 해고되었고, 이에 삼성의 사과와 명예회복, 그리고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 중이다. 하지만 고공농성 100여 일이 넘은 지금까지 삼성과 정부 관계당국은 어떤 응답도 없다. 한국작가회의 작가들은 농성현장 문예연대, 기자회견, 문화제, 강연회뿐만 아니라 삼성해고자 고공농성 문제해결을 위한 언론사 릴레이 기고에도 함께하면서 삼성의 노동탄압과 재벌비리를 고발하고 피해노동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글 · 임성용 시인

⑩ 문화제에서 발언하는 손채은 시인
⑪ 강남역 8번 출구 앞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농성천막
⑫ 작가문화제에서 공연하는 연영석 민중가수
⑬ 장우원 시인의 시낭송
⑭ 6. 29일 젊은작가포럼 최지인 위원장 시낭송
⑮ 채상근 시인 연대발언

입술을 닦을 때

서재진

너를 생각하며 거울을 닦았다. 나는 이것을 애정이라 부르기로 했다.

바깥에서 꽃가루가 들어왔다. 거울을 닦으면 노랗고 뿌연 꽃가루가 묻어나왔다.

이 방에는 식물이 자라지 않는다.

식물이 될 수 있었던 먼지들이 바닥마다 내려앉았다. 식물의 색을 한 립스틱을 보며 나는 이것을 고요함이라 불러도 될까, 고요한 것들은 탄생도 사라짐도 모두 소리 없다고

어느 날 잃어버리게 될 립스틱을 보며 생각했다.

이 고요함은 식물이 자라는 속도만큼 천천히, 천천히

사라진다.

볼록한 입술을 따라 립스틱을 바르며, 식물이 없는 방에 식물의 색만 있다고 생각한다.

재채기를 하며 거울을 닦았다. 식물이 되지 못한 것들이 식물이 되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다.

가을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들은 모두 체액의 빛깔이다.

고요한 애정에 대해 생각한다. 거울 안에는 립스틱을 바른 얼굴이 있다. 누구를 생각하면서 샀는지 모를 화장품들을 보며 네 방에도 꽃가루가 들이쳤겠다고, 거울을 닦으며 네 얼굴을 훔쳐오고 싶다고 생각한다.

도로변 공중화장실에도 좁은 방 창틀에도 조그만 입술에도 모두, 자라지 못하는 식물이 있었다.

서재진 1996년 경상남도 함양 출생. 2017년도 〈대산대학문학상〉으로 등단.

이상기후

최백규

우리가 안고 있으면 낙서를 채색하는 것 같다 무릎 상처에 시퍼렇게 그늘이 자란다

캄캄한 욕실에서 더운물을 얹으면 붉은 꽃잎들이 흩어진다 등허리에 성호를 그으며 이것이 나의 해안이 될 거라 확신한다 그곳에서 너와 마주친다면 세상을 사랑해 볼 수도 있겠다 싶다

무덥도록 조용한 실내에 머무르면 죽은 이후가 기억나서

수의를 벗듯이 잔기침을 식힌다

모기를 쫓거나 흐트러진 베개를 고쳐 주던 휴일이 침대맡으로 쌓여 드는데

숨소리로 구분할 줄 알면서도 자는지 속삭여 보는 습관이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만 든다

너를 지옥에서 온 안부라고 믿었던 적이 있다

물을 마시려다 냉장고 문을 연 채
가만히 서 있다

―『애지』 2019년 여름호 발표

최백규 1992년 출생. 2014년 『문학사상』 신인문학상으로 등단. 창작동인 '뿔'로 활동 중.

스물세 살의 청년 불광문고

김경후 (불광문고 상주작가)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23년 동안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불광문고'는 불광동을 중심으로 서점이 지역 문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왔다. 오랜 단골손님도 많고 운영의 묘도 켜켜이 축적되었다. 애정을 갖고 20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다. 이 정도의 저력과 역사라면 탄탄대로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장수련 점장님의 말처럼 "서점의 스물세 살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작은서점 지원사업이 있다는 건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동네 서점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고 불광문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불광문고는 '2018년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사업'에 이어 2019년 사업도 지원했다.

어느 날부터 불쑥 서점에 출근을 하게 되면서 가장 놀랐던 건 사람들이 책을 잘 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책을 갖고 싶어 하는 아이에게 엄마들은 인터넷으로 사주겠다고 하거나 숙제할 만큼만 베끼거나 사진을 찍어갔다. 처음 일주일 동안 보고 들었던 서점에서의 일들은 내가 상상했던 꿈의 책방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 지금까지도 잊히지가 않는다. 서점에 있으면서 느꼈던 불광문고가 갖고 있는 동네 책방의 철학과 동네주민들에게 쏟는 정성과 노력을 떠올리면 직원도 아니면서 주민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기까지 했다. 그리고 작가로서의 나 자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됐다. 작가라면 책과 가까운 사람일 텐데 책에 대해 너무 몰랐다는 걸 알았다.

불광문고 입구에는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돌이켜볼 테마로 매대를 서너 개 꾸린다. 깔끔하고 멋진 매대에 북큐레이터 분들이 고른 책이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손님들과 소통한다. 봄엔 '여성과 청소년들의 사랑'이 테마였고 3월엔 잊힌 '항일 여성독립운동가'를 중심으로 꾸렸고 8월엔 '식민지에 살다'와 '어쩌다보니 왕따'라는 주제로 다양한 책들이 동네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곳은 베스트셀러를 더 빨리 더 많이 팔기보다 문제의식과 정서를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며, 상주작가이기 이전 불광동 주민인 내가 불광문고에서 특히 더 애착을 가지는 멋진 코너이기도 하다. 다음 달엔 어떤 테마가 만들어질지 지금도 많이 설렌다.

2018년 작은서점 사업을 함께한 두 곳의 서점과 이번에도 같이한다. 역촌동에 위치한 '책방비엥'과 신사동에 있는 '미하북스'다. 불광문고를 포함한 이 세 곳의 서점은 각각의 개성이 있다. 분위기와 가치, 문학에 대한 생각과 중요도, 서가에 꽂힌 책들까지 다 다르다. 이렇게 다양한 멋과 개성이 아마 작은서점들의 장점이 아닐까. 작은서점들이 다채로운 꽃들처럼 각각 다른 빛깔과 특성을 가지고 보다 많은 주민들의 사랑방도 되고 명소도 되고 아끼는 동네 공간이 되어갈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난번 사업에서는 세 서점 담당자들이 모여 7개월 동안 시 장르로만 행사를 하기로 했다. 불광문고에서는 시 강의나 낭독회를 하지는 않았지만 동네주민들이 시를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게시물들을 만들었고 책방비엥과 미하북스에서는 김상혁 시인과 이현호 시인이 파견작가로 수고해주셨다. 한 달에 두 번 있는 행사를 일곱 달 동안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은데 파견작가 두 분이 아이디어를 짜내고 여러 번의 회의를 하면서 해당 서점에 도움이 되고 잘 맞는 프로그램을 골라주셨다. 확실히 책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은 책을 만나고 책방엔 사람들이 붐벼야 생동감과 활기가 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서점 측은 물론 상주작가, 파견작가, 심지어 행사에 참여한 분들까지 낯설고 어색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 특히 매출이 빨리 오르길 바라는 건 무리이다. 서점을 동네에 많이 알리고 이미지 구축도 하고 활기도 띠었지만 직접적으로 서점의 매출에 연결되기를 바라기엔 거대한 장벽들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2019년 사업에 한 번 더 지원할 수 있었고 첫 번째 함께했던 서점들과 이번 사업도 같이하게 되었다.

지난번 사업을 하며 알게 된 지점들을 보완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프로그램을 꾸리기 위해 세 서점들이 함께 힘을 내고 있다. 이번엔 소설과 에세이 중심으로 이주란 작가, 김성중 소설가가 행사를 꾸린다. 소설이라는 장르는 같지만 두 곳의 작은서점이 앞으로 만나고 싶어 하고 만나야 할 동네주민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행사를 치를 때마다 작은서점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생각하게 된다. 그 서점에 가장 적절한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모험 같다. 하지만 조금씩 작은서점이 정체성을 고민하고 작은서점 사업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짜내야 한다는 의식, 그 방향성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작년 사업의 성과 및 실수의 결과이다. 책방비엥을 품고 있는 동네가 책방비엥스러운 프로그램으로 분위기 있고 독특하고 우아하기를, 미하북스를 품고 있는 동네가 미하북스다운 프로그램으로 단단하고 소탈하고 정감 있기를.

11월에 스물세 번째 생일을 맞는 청년 불광문고는 그동안 많은 변신을 꾀했고 앞으로도 계속 진보하려는 의지와 실행력이 있는 동네 서점이다. 그러나 그 많은 에너지와 가능성과 정성들도 동네주민들이 외면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요즘 스물세 살의 청년들은 예전처럼 자립하고 어른으로서의 출발을 하지 못하고 생계와 생존 문제로 힘들어한다. 꿈이 아니라 상실을 맛보고 활력이 아니라 두려움에 휩싸이는 나이라고 한다. 들리는 말로 불광문고도 요즘 스물세 살의 청년과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녹록지 않은 스물세 살,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녹록한 순간은 없었을 스물세 살. 아름답고 씩씩하고 다정한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닮은, 그 사람들이 고른 책들이 가득한 불광문고. 상주작가로서 그리고 동네주민으로서 나는 불광문고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가장 지혜롭고 멋지게 넘기길 바란다. 생각한다. 믿는다.

김경후 1998년 『현대문학』으로 등단. 시집 『오르간, 파이프, 선인장』 등이 있다.

삶의 리듬을 파괴하는 것들에 대한 저항 - 시집 『생말타기』

강덕환

“이 땅의 자양분을 야금야금 갉아먹으며 자라온 나로서는 이 땅과의 뜨거운 밀착을 통한 사랑이 또한 내게 부여된 소명이다. 그러기에 주접스러워 하는 토속어를 껴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삶의 리듬을 파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온몸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저변에 깔려 있다.”

나는 첫 시집 『생말타기』(1992, 도서출판 오름)의 자서(自序)에서 이렇게 건방을 떨고 있었다. 마치 시 작업을 대자보 쓰듯, 성명서 날리듯 여겼던 것이 분명하다. 그럴 만도 했다. 80년 서울의 봄부터 대학시절을 경험했던 나로서는 ‘준마가 아니고서는/건널 수 없는 식민지의 강’이거나, ‘우리들의 현실은 슬픈 분단조국’(시 「생말타기」 일부)이었다. 새로 이전되어 교문도 세워지지 않았던 캠퍼스 입구엔 얼룩무늬 개구리복을 입은 계엄군이 총검을 찬 채 지키고 있었고, 더벅머리 새내기는 문학동아리(신세대)를 만났고, 문학동인 ‘풀잎소리’를 결성하여 ‘나약한 흔들거림 속에서도 제 목소리를 잃지 말자’고 다짐했다. 학과(경영학 전공)보다는 동아리나 동인 모임에 열중이어서 학과 대표로부터 “너, 무슨 과였지?”라는 말을 들어야 했고,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할 때, 소풍이나 낚시 대회를 빙자하여 창작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곤 했다. 그렇게 20대 초반부터 시작된 시 쓰기 과정은 개인적 고뇌로 창작물을 탄생시키는 것이 아닌, 공동창작과 몸짓으로 표현하는 시극(詩劇) 공연으로 독자와 관객을 만나곤 했다. 따라서 시인으로서의 등단과 시집 출판은 뒷전이었다. 오히려 문단 사회가 만들어 놓은 등단제도에 대한 반감이 거셌는지 모른다.

87년 6월 항쟁은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또 다른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자각에 이르렀다. 저마다의 성향과 색깔을 지녔던 동인 활동을 뛰어넘어 연합체 성격의 ‘제주청년문학회’가 결성되는 배경이었고, 다른 예술 장르와 결합한 ‘제주문화운동협의회’가 탄생하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출판문화운동에도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그래서 월간 잡지사에서 기자 생활을 했던 까닭이기도 했다. 사실, 제주가 문학의 섬일 수는 있어도 문학인의 섬은 아니지 않는가, 라는 자조 섞인 푸념을 입에 달고 다녔던 게 사실이었다.

그러던 차에 기회는 우연찮게 다가왔다. 후배 녀석들이 〈도서출판 오름〉이라는 출판사를 등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첫 사업으로 나의 시집 발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짜고짜 작품을 모아 달라는 것이었다. 엉겁결에 이뤄진 시집 『생말타기』는 이러한 사연을 담고 처음으로 세상과 만나기 시작했다. 출판에 그치지 않고 서점을 돌며 비치하는 등 후배들은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지인들에게 강매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제주대학 신문의 설문조사 결과 베스트셀러 2위까지 올랐다는 소문까지 떠돌았다.

그런데 이미 절판된 시집 『생말타기』가 또다시 사고를 쳤다. 지난해 3월, 〈도서출판 한그루〉와 시집 전문서점인 〈시옷서점〉의 후배들이 의기투합하였다. 그러고는 절판된 시집에 새 옷을 입혀 되살리는 ‘리본(reborn)시선’ 첫 발간사업으로 『생말타기』를 발간한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서툴고 미숙하게 세상에 분양했던 시들을 다시 만나야 하는 조바심이 일었지만, 이러한 일이 “흔치 않은 일이다. 부럽다!”는 동료시인의 시샘을 듣기도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복간 6개월 만에 2쇄를 발간하여 인세까지 받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 한반도의 남쪽 끄트머리에서 이름 없는 시인이 두 번씩이나 자비를 들이지 않고 시집을 출판하고 인세를 받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기에 자찬 타령을 늘어놓은 이 글이 밉지 않게 읽혔으면 좋겠다.

강덕환 시집 『생말타기』 『그해 겨울은 춥기도 하였네』, 공저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4·3문학지도 Ⅰ.Ⅱ』 등이 있다. 현재 제주4·3평화재단 연구원.

I am Detailist

Detail + Specialist
;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기술

구성원 모두가 디테일하고
모든 과정이 디테일한 병원

그런 사람들이 만든 병원
그런 사람들이 모인 병원
그런 사람들이 하는 병원

이것이 우리가 디테일의
스페셜리스트라 불리는 이유

강남구 논현로 571 바노바기B/D
www.banobagi.co.kr
바노바기성형외과의원 역삼역 6번/언주역 7번출구 문의전화 1588-6508

저녁과 저녁이 마주하고 저녁은 저녁을 부르다 저녁이 된다
일요일의 오후와 굳게 닫힌 공장문과 신발장과
다시 일요일의 오후를 기억하고
혼잣말을 하는 저녁은 저녁의 테두리를 걷다 저녁이 된다

최세운 2014년 『현대시』로 등단.

배가 빵빵하오

김바다

배가 빵빵한 청개구리를 보고 사마귀가 말했어.

“청개구리 씨, 숨 크게 쉬지 마소. 재채기하지 마소. 애벌레 그만 잡아먹소. 빵 하고 배 터질까 걱정되오.”

청개구리도 배가 빵빵한 사마귀를 보고 말했어.

“사마귀 씨, 사돈 남 말 하고 있소. 댁도 빵 하고 배 터질까 걱정되오.”

나무 위에서 보고 있던 까치가 끼어들었어.

“두 분의 배가 빵빵하니 보기가 좋소. 애벌레 더 많이 잡아먹소. 탄력 좋은 배라 터질 일은 없겠소.”

청개구리와 사마귀는 까치를 올려다보며 톡 쏘아붙였어.

“까치 씨, 왜 가까이 다가오오. 우리가 쉽게 잡아먹힐 것 같소?”

“까치 씨, 검은 마음 숨기고 있어도 다 보이오.”

까치가 갑자기 날아와 청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했어. “객객 객객 객객객객…….”

눈치챈 청개구리가 얼른 목화 잎 뒤로 숨었어. 그러자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어.

“푸드덕 푸드덕…….”

사마귀도 얼른 목화 잎 뒤로 숨었어.

“청개구리 님, 사마귀 님! 여기로 올라오세요.”

바로 그때 하얀 솜사람이 다가와 말했어.

“댁은 누구시오?”

눈이 휘둥그레진 청개구리도 올라탔어.

“어디로 가오?”

사마귀도 몽글몽글한 쪽배에 폴짝 날아서 앉았어.

“가보면 알아요.”

솜사람은 빙긋 웃으며 청개구리와 사마귀를 안심시켰어. 둘이 쪽배에 앉자마자 하늘로 두둥실 떠올랐어.

“이제 도착했으니 내려서 저를 따라오세요.”

청개구리와 사마귀는 사방이 하얀 세상이라 놀랐어.

“두 은인님, 목화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번쩍번쩍하는 왕관을 쓴 커다란 솜사람이 둘을 반겨주었어.

“목화나라 왕이신가요?”

청개구리가 물었어. 솜사람이 둘 앞에 애벌레가 꼬물대는 접시를 내밀었어.

“한 번 드셔 보세요.”

청개구리와 사마귀는 망설이다 애벌레 한 마리를 먹었어. 목화밭에서 잡아먹은 애벌레와는 견줄 수 없는 맛이었어.

“천천히 드세요. 애벌레는 아주 많답니다.”

왕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 솜사람이 둘을 푹신푹신한 침대로 데려갔어. 둘은 눕자마자 잠이 들었어.

“잠깐 일어나 보시어요. 목화나라를 보여드리겠어요.”

청개구리와 사마귀는 목화나라를 둘러보았어. 목화솜으로 동그랗게 만들어 하늘로 올려 보냈어. 가끔 솜으로 쪽배도 만들었어. 행복하게 사는 목화나라의 솜사람들을 보니 둘은 기분이 좋아졌어.

목화나라 왕이 청개구리와 사마귀에게 작은 왕관을 씌워 주었어.

“두 은인을 목화나라 작은 왕으로 책봉해서 새 목화밭으로 보내드리겠어요. 부하들과 함께 지금처럼 목화밭을 잘 지켜주세요.”

왕은 애벌레를 담은 커다란 상자를 선물로 주었어. 왕관을 쓴 청개구리는 새 목화밭으로 갔어. 청개구리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애벌레를 나눠주며 큰 소리로 말했어.

“목화밭에 잎말이나방 애벌레들이 잎 한 장씩 도르르 말고 들어앉아 있소. 목화 잎은 다 마르고 아기 다래까지 말라죽어 가오. 애벌레들로부터 목화밭을 지켜주시오.”

왕관을 쓴 사마귀도 새 목화밭으로 갔어. 사마귀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애벌레를 나눠주며 청개구리와 똑같은 말을 했어.

까치가 청개구리가 새 목화밭으로 돌아왔단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

“어, 어떻게 된 일이오? 머리에 번쩍번쩍하는 그건 또 뭐요?”

“보면 모르오? 왕이 쓰는 왕관이오. 부하들도 좀 보시오.”

까치는 사마귀도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 머리에 쓴 왕관이며 넓은 목화밭과 부하처럼 잘 따르는 사마귀들을 보았지. 까치는 충격을 받았어. 멋진 깃털과 똑똑한 머리를 가진 나는 왜 왕이 못 되었을까? 저런 청개구리, 사마귀가 왕이라고 번쩍번쩍한 왕관을 쓰고 있는데. 까치는 청개구리와 사마귀가 사는 목화밭에 나타나지 않았어.

청개구리 왕과 사마귀 왕은 부하들에게 잘 해주어 목화밭은 대풍년이 들었어.

겨울이 다가오자 청개구리는 따뜻하고 포근한 집에서 겨울잠에 들었어. 사마귀는 보글보글 거품 속에 잔뜩 알을 낳고 깊은 잠에 빠져 들었지.

잠깐, 청개구리와 사마귀는 잠들기 전에 만나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

“청개구리 씨, 배가 빵빵하오.”

“사마귀 씨도 배가 빵빵하오.”

김바다 2000년 『어린이문학』으로 등단. 동시집 『로봇 동생』 『안녕 남극!』, 창작동화 『시간 먹는 시먹깨비』 『꽃제비』 등이 있다.

2019년 1월 17일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공단으로

새롭게 도약했습니다.

더 건강한 자연
더 행복한 인간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국립공원공단은

1987년 설립된 우리나라 보호지역 전문기관으로 자연자원을 보전·보호하며 국민들이 올바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 생태계의 건강성과 국민의 행복감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KOREA NATIONAL PARK SERVICE

나는 그들의 팬이다

이은조

Bring the soul

한여름날 극장 구석 자리에 앉아 관객들의 입장을 지켜보았다. 어린이, 청소년, 중장년층 등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실제로 그들이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가슴이 뛰고 손에 땀이 났다. 학창 시절에 한 뉴웨이브 팝 그룹을 좋아했다. 영국으로 가 그들을 만나는 게 꿈이었다. 그룹의 사진이 한 컷이라도 실린 잡지는 모조리 사서 스크랩했다. 라디오에서 그룹의 노래가 나오면 끝날 때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켰다. 오빠들이 노래하는데 어떻게 자리를 뜰 수 있겠는가. 오빠들의 노래를 어떻게 끊을 수 있겠는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오빠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학교 생활이 바쁘기도 했지만 도착이나 했는지도 모를 공들여 쓴 팬레터의 행방,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물리적 소외감 등 일방적인 소통은 그렇게 끝이 났다. 그 이후로 나에게 스타는 없었다. 스타를 좋아하는 회의감을 알아버렸고 스타는 그저 나와 너무 먼, 평생 서로의 존재도 모르고 사라질 사람들이었다.

극장 구석 자리에 처박혀 있는데 휴가를 온 것 같았다. 그들이 나에게 휴가를 준 것 같은 착각마저도 즐거웠다. 시간을 쪼개 음악을 듣고 동영상을 보다가 두 시간 동안 그들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다. 중년이 되어 대중 스타를, 아이돌을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다. 처음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혼자 간직하고 싶은 게 아니라 굳이 나의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무 좋은 나머지 소문을 내고 싶어졌다. 선한 영향력과 에너지를 가진 이 친구들을 혼자 좋아하기엔 너무 아쉬웠다.

왜 안 그러겠는가, 방탄소년단인데

오래전 그룹을 좋아했던 마음을 접게 된 이유를 요즘에야 알게 되었다. 나는 오빠들과 상상으로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 그땐 내가 어렸으니 그룹을 보고 설레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었다. 그런데 그룹은 너무 멀리 있었고 나는 너무 어렸고 언어도 통하지 않을 것이었다. 세월이 흘러 여러 형태의 삶을 체험하고 목격한 중년이 되었다. 곧 내 눈앞에 나타나 스크린을 장악할 그들의 음악을 듣고 백스테이지 동영상들을 보면서 이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화학적 상태와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불쑥 내 인생을 돌아보게 만들었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손에 쥐어준 게 없는 것 같아 돌아보고 싶지 않았던 나의 20대.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게 최선이었다고 위로하게 된 것도 그들의 음악을 듣고 나서였다.

마침내 극장의 지루한 광고가 끝나고 소속사 로고가 뜨자 어린 관객들이 탄성을 터트렸다.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조용했지만 그 작은 소리에 설렘, 떨림, 사랑, 기대, 숭배 등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왜 안 그러겠는가. 방탄소년단인데.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것이다

〈브링 더 소울〉은 방탄소년단의 서울, 북미, 유럽 콘서트 투어 'Love yourself'를 마친 멤버들의 뒤풀이, 무대 뒤 이야기다. 7명의 멤버들은 긴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즐기며 밀린 이야기들을 풀어놓는다. 콘서트는 독보적이고 에너지가 차고 넘친다. 파워풀한 춤과 꽉 찬 음악의 힘이 느껴진다. 그들의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단순한 멜로디와 가사가 아니어서 놀랐고, 몸을 소진시킬 정도의 강렬한 춤에 두 번 놀랐다. 그들은 노래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이야기하며 노래하고 있었다. 지금 고민과 생각, 미래, 불안, 담담함 등을 때로는 즐겁게 때로는 차분하게 말하고 있었다.

음악으로 말을 걸고 있는 그들은 팬들과의 소통도 활발하다. 어떤 스타들은 가리고, 숨기고, 잘 알려주지 않는다. 스타를 사랑하는 팬들은 관심이 넘쳐 작은 것조차도 알려고 한다. 그런데 방탄소년단은 적극적인 소통으로 소소한 일상을 알려주고 팬들과 대화한다. 보여주고 보여줄수록 거듭되는 매력이 더해져 진짜 신비주의가 완성되는 느낌이다. 어차피 가리고 숨겨도 대중들은 그들을 볼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드러내놓고 같이 이야기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처럼. 관객들의 열렬한 함성은 너무 당연하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The Gurdian)〉 인터뷰에서 리더 알엠은 이렇게 말했다. "전용기를 타고 콘서트를 하지만 내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이런 인기가 영원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롤러코스터를 타듯 즐긴다. 그리고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것이다."를 반복해 말해 본다.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것이다. 인생의 한 시기가 마무리된 것이니 다음 코스로 이동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한 것이다, 인기란, 인생이란.

즐긴다는 말은 순간에 집중한다는 뜻

그들의 영상을 보고 있으면 행복하다. 일상을 공유하고 소탈한 에피소드를 들려준다. 한 멤버가 음악에 맞춰 리듬을 타면 옆에 있던 멤버도 같이 춤을 추고 그러다 모두 춤을 추고 있다. 음악을 좋아하는 티가 많이 나는 장면들이다. 즐긴다는 말은 순간에 집중한다는 뜻이다. 자기들 노래에 맞춰 춤추거나 노래할 때처럼 신명나 보일 수가 없고 즐기고 있다는 게 잘 보인다. 별거 아닌 장난이나 농담을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이 왜 이렇게 부러울까. 고단했던 20대를 떠올리면 항상 함께 있었던 친구들이 딸려 나온다. 그때 친구들은 나의 전부였다. 밤새 고민하고, 다음 날 글을 쓰고, 다시 만나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토론하고, 싱거운 맥주를 마시고, 서로를 웃겨주던 일기장 같던 친구들. 그런 반면에 나는 되게 외로웠고 고독했다. 그때 쓴 일기에는 고독과 외로움이 세트로 묶여 있다. 자연스럽게 걸치게 될 때까지 그 두 벌의 옷은 한없이 무겁고 초라했다. 이십 대란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다. 서툴고 거칠었지만 순정한 시절이었다.

그들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짧은 단편소설을 읽고 있는 것 같다.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까지 노랫말로 쓰고 이야기로 부르고 있는 그들이 너무나 경이롭다. 나에게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 즐겁게 만들어주기도 하니 나는 그들의 팬이다. 늦게 알게 되어 아쉽기도 하지만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니 얼마나 다행인가.

추신: 방탄소년단이 처음이라면 가장 최근에 발매된 정규 앨범부터 들어보기를 권한다. 〈MAP OF THE SOUL : PERSONA〉에서 시작하여 데뷔 앨범에 도착해 있다면 당신은 이미 방탄의 팬이다.

이은조 200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장편소설 『나를 생각해』, 소설집 『수박』이 있다.

공주국밥집에서 연잎밥을 만났을 때

안연옥

공산성 바람이 휘돌다 내려와 만나는 집, 30년 가까이 수도 없이 드나들면서 함께 국밥을 먹고 수다도 떨던 내 친구의 국밥집이 금강을 바라보고 있다. 65년의 전통을 가진 국밥집이다. 시집와서 어머님 가게를 물려받은 친구가 ‘새이학가든’이라는 상호로 운영한 지도 벌써 30년째, 처음엔 원도심 안의 ‘이학식당’으로 시작했다. 공주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공주 시내 본정통 사거리의 랜드마크가 되던 곳이다.

그러다가 금강가로 옮겨온 새이학가든, 나의 오래된 친구, 김혜식의 집이다. 창문이 넓은 이층 방에서 금강철교를 바라보며 음식을 먹다 보면 음식도 음식이지만 우리가 함께한 즐거운 시간은 추억이 된다. 어떤 날은 아름다움을, 어떤 날은 희망을 함께 얘기하기도 했다. 어떤 때는 슬픔처럼 스멀스멀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서 시나 문학을 함께 얘기하며 시인을 꿈꾸기도 했다. 그리하여 지금은 시인으로 불리며 좋은 문우의 길을 함께 걷고 있다.

내 친구 가게 한구석엔 보석 같은 쪽방의 공간이 있다.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이 남들 모르게 차도 마시고 가끔은 와인도 마실 수 있는 비밀스런 방이다. 양쪽 벽은 책으로 둘러쳐져 있고 여기저기 사진도 걸려 있는 그녀만의 공간이다. 여행을 좋아하는 친구는 복사지로 사진을 뽑아서 여기저기 ‘꽉지’로 사진을 꽂아 놓는데 허술해 보여도 내겐 예술이다.

그녀의 방을 들어서는 순간 다녀온 곳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운다. 대단한 전시장의 사진보다 나는 내 친구의 사진을 좋아한다. 내게만 여행 얘기를 들려주는 듯한 사진은 내게도 여행의 꿈을 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녀의 방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개구역이 아니다. 그녀가 친구라고 느끼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제한공개구역이라고나 할까, 다행히 내게는 언제나 열린 공간이기도 하다. 그녀가 여행이라도 가면 그 방은 굳게 닫힌다. 어쩌면 그리도 문 하나 차이가 세상을 닫듯 표정이 다른지.

언젠가는 그 방에서 차를 마시며 시와 음악, 혹은 사진 같은 그런 얘기로 시간을 보내다가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게 수다를 떤 적이 있는데, 방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깜짝 놀라 문을 다시 닫고 말았다. 재잘거리는 아이들과 손님들이 입구 밖에 쭉 줄지어 서 있었다. 문 하나로 세상과 단절될 수 있다니, 하지만 그녀의 단절 공간에서 우리만 통할 수 있는 이야기를 공유한다는 것이 참 좋다. 은근한 비밀을 나누는 듯해서 좋다.

가게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이니까 국밥 얘기도 하고 넘어가야겠다. 사람들은 이 집의 공주국밥을 두고 때로는 시원하다느니 밍밍하다는 등 말들이 많은데 이 집의 국밥은 ‘배토롭한’ 맛을 지녔다. 순전히 주관적인 나의 입맛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쇠고기와 사골로 고아 만든 국물에 굵은 대파만을 넣어 끓인 후 숙성시킨 숙성의 맛으로 배토롭한 맛이 난다. 나는 이 집의 국밥을 먹을 때 파를 건져서 식힌 후 파에 고기를 돌돌 말아서 귀족처럼 먹는다. 그렇게 먹은 후 국물에 밥을 말아 먹어보면 어우러지는 맛이 입안의 깔끔함을 더해준다. 오래 먹다 보면 국밥에도 나만의 먹는 법이 생기기 마련이다. 국밥에도 습관이 생긴다.

음식 얘기하는 김에 이 집의 연잎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연잎밥이라 하면 사실, 내가 만든 내 사업체의 연우당 음식이다. 내 친구가 국밥집을 시작한 것보다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후에 내가 연구하여 만든 음식을 내 친구가 식당의 메뉴로 개발한 것이다. 국밥집 차원으로 본다면 연잎밥이 어울릴까 생각되겠지만, 국밥 정식을 개발하면서 함께 추가된 연잎밥 정식은 생각 외로 반응이 좋은 메뉴이다. 더구나 공주에서 연잎밥은 역사적으로 볼 때 백제 시대로 올라가서 기원을 찾을 수 있는 공주의 음식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집에서의 국밥 정식이나 연잎밥 정식은 공주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를 잡아도 좋은 품목으로 국밥과 연잎밥은 서로 잘 어울리는 공주의 음식이다. 인터넷에 공주국밥이나 연잎밥이란 단어 하나만 쳐도 공주국밥 이야기와 연우당의 연잎밥에 대해 자세히 나온다.

연잎밥 정식 상차림은 함께 나오는 반찬 또한 다양하다. 여러 음식 중 내가 특히 좋아하는 박하지 게장이 함께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과장된 것일까, 연잎밥의 향기와 바다의 향기가 섞이면서 음식을 먹는 시간이 행복하기까지 하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면 모든 시름이 사라진다. 또한 다른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연잎밥은 이 집의 석갈비나 불고기와 함께 먹어도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음식 중 하나이다. 내가 정성을 들여 싸고 쪄서 만든 연잎밥이기 때문에 내 음식을 맛나게 먹어준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지기도 한다. 또한 함께 음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공주의 대표 메뉴가 될 백제 음식을 함께 고민하면서 개발하는 과정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사업의 동반자로 묶어준다.

이제는 나이 들면서 가끔은 할 수 없는 일들이 늘어나기도 한다. 사는 것으로 인해 힘든 일이 생길 때 친구 집에 들러 국밥 한 그릇 함께 나누고 2층 쪽방으로 올라가 그녀의 쪽방에서 시름을 나누기도 한다. 내게는 언제나 열려 있는 공간이다. 내어주고, 열어주는 공간을 공유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정신을 아직도 푸르른 여름에 머물게 해준다. 예나 지금이나, 지금까지 늘 그래 왔던 시간처럼.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할 공간과 인생을 나눈다. 함께 어제 같은 오늘을 살 수 있어서 좋다. 나눌 것이 아직 남아서 좋다.

그녀가 좋아하는 공간이면 나는 무조건 좋다. 새이학가든의 작은 화단까지 좋다. 보랏빛 자잘한 꽃이 줄지어 필 때, 어느 날 갑자기 보랏빛 꽃이 가슴으로 쏙 들어와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도 한다. 슬며시 눈물을 감추고 까르르 웃으며 아무 일도 없는 양, 나를 감추는 일들이 잦아지는 나이 듦이 슬퍼지는 날, 그런 날까지 공유하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함께 왔다. 우리는 철 지난 음악을 들으며 우리가 앞으로 더 살아갈 시간을 얘기할 것이다. 이제는 틈틈이 시간을 내어 함께 여행을 하고 싶다.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기회가 된다면 이 친구와 함께한 시간으로 음식 여행책을 한 권쯤 만들어보면 좋겠다. 그러길 소망한다.

안연옥 시인, 충남 작가회의 회원.

청춘 CEO

김요아킴

세필이는 여느 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다. 늘 수업을 마치고 왁자지껄한 복도를 지나칠라 치면 어디선가 나타나 슬쩍 내 어깨를 부딪치며

"쌤, 안녕하세요? 흐흐"

하고 특유의 배배 꼬는 몸놀림으로 도망치곤 했다. 그러면 어김없이 나는

"요즘 니 사업은 잘 되어가나?"

라며 매번 응수를 하였다.

하지만 오늘은 고개를 푹 떨군 채 말이 없다. 그러고 보니 어제 야자시간, 세필이는 올해 학교에 새로 부임한 담임 선생님과 교무실에서 몇 시간째 실랑이를 벌였었다.

"니, 어제 8교시 방과 후 수업시간에 어디 갔었노? 출석부에 결과처리 되어 있던데, 응?"

모든 것이 분명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의 담임은, 쇳소리 나는 특유의 하이톤으로 다그쳤다. 세필이도 억울한 듯 지지 않고

"배가 아파 화장실 갔다가 좀 늦었는데 자리에 없다고 수학 쌤이 그은 거예요. 그리고 깜빡하시고 지우지 않은 건데, 정말이에요. 얘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야자 1교시에는 어디 있었노. 쌤이 교실에 앉아 아무리 니를 기다려도 오지 않던데……."

담임의 집중적인 추궁이 시작되자 세필이는 어물쩍거리며 점점 말문이 막혀오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하며 대답을 얼버무리는 태도에 화가 난 담임은 급기야 부모님과 전화통화를 했고, 큰일이 난 줄 알고 부리나케 달려온 어머니 앞으로 지금껏 세필이의 야자를 짼 내역들이 속속 까발려지며 일장 훈계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머니의 고개가 점점 숙여지는 만큼 세필이의 얼굴도 붉으락푸르락해져 갔다.

하지만 나는 안다. 세필이가 끝까지 말 않고 있는 그 무엇을……. 그날 저녁, 학교 급식에 물려 슬그머니 교문을 빠져나와 단골집에서 찰진 면발과 뜨끈한 국물의 환상적 콜라보를 경험한 나는 슬슬 야자가 시작되기 전, 학교로 돌아오고 있었다. 막 편의점에서 산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주변 쌈지 공원에 앉아 쉬려던 찰나, 운동기구 뒤쪽 구석진 곳에서 숙덕숙덕하는 인기척이 들려왔다. 넌지시 시선을 던져보니 웬걸, 웬 여학생 한 명과 함께 세필이가 서로 인상을 찌푸리며 심각하게 앉아 있었다. 슬쩍 오가는 대화를 듣자니 결말이 나지 않을, 꽤나 이야기가 오래갈 모양새였다.

세필이는 학교에서 모두가 알아주는 청춘사업가다. 그리 잘생기지도, 그렇다고 롱다리의 키 큰 학생도 아니다. 공부도 시원찮고 또 화려한 '말빨'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만나는 여학생들은 한둘이 아니다. 매번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여자애들이 자꾸 귀찮게 다가와 사귀자 한다며 가끔씩 내게 푸념을 털어놓는 때도 있었다. 게다가 주변 친구들이 부러움과 함께 은근히 다가와 아는 여학생 한 명 소개해 달라는 청탁이 줄을 이었고, 여학생들끼리는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는 '존잘남'으로 통했다. 처음엔 그런 자신의 모습이 멋지고 우쭐하였지만 이제는 꼭 그런 것만도 아닌, 사실 사업관리가 넘 힘들다고……. 비록 농담 반 진담 반인 줄은 알지만 그런 녀석을 지켜볼 때마다 학창시절 나 자신의 모습과 자꾸 오버랩 되는 것은 왜일까?

"야, 그라모 2반 아이들과 반팅하는 기다. 일단 내일까지 편지하고 선물 한 개씩 가져오면 내가 알아서 전해줄게. 1번은 그쪽 반 1번에게 번호순대로…… 그라고 이거는 복불복이다. 알제?"

우리 반 제일의 '깔롱쟁이'이자 당대 최고의 근육질 배우 실베스타 스탤론을 닮은 희재, 자칭 타칭 실베로 통하는 이 친구는 이웃 여학교까지 소문난 아이이다. 그런 그가 우리들을 위해 하해와 같은 은총을 베풀며, 지금 위험한 작전을 감행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제멋에 겨워 '싸나이'다운 폼을 잡는 허세도 작용했지만, 그 덕분에 나는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이성에게 편지를 써보는 행운을 누렸다.

그러고 보니 나는 모태솔로다. 선천적으로 숙맥인 데다가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 땜에 이성과는 말 한번 제대로 섞은 경험이 없다. 게다가 초등 5학년 때부터 남녀 반을 나누는 바람에 여학생과 만날 기회를 완벽히 차단당했고, 더군다나 담임 선생님도 지금까지 여자분이 된 적이 없다.

51번, 키 큰 순대로 번호를 정하다 보니 그쪽 51번은 혹여나 키 큰 여학생이 아닐까 하는 오만 생각에 사로잡혀 학교 매점에서 산 편지지로 밤새 끙끙대었다. 괜스레 깜빡이는 형광등에 화풀이를 해대며 구겨진 채 쌓여만 가는 아까운 종이들을 보니 마치 내 모습과 같아 슬펐다. 선물로 준비한 꽃무늬 손수건도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이별을 의미한다나 하는 이상한 소리를 짝지한테서 듣기도 했다.

어찌 되었던 얼마 지나지 않아 실베는 한 보따리의 편지와 선물을 산타클로스처럼 가져와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고, 덤으로 이번 주 일요일 시내 공원에서 반 전체가 만나는 이벤트를 준비하였다. 김빠지는 소리긴 하지만, 진행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나 하는 나의 불안감은 바로 그날 아침 확인을 할 수 있었다.

이성과의 만남이 엄격하게 금지된 때라 서로 만난다는 것이 괜히 꺼림직하고 또 만나 무슨 말을 할까 하는 난감함에 미적거리다, 그만 버스를 놓쳐 늦고 말았다. 하지만 이것이 어쩜 나를 처참한 현장의 목격자로 만들어 준 셈이었다. 저 멀리 공원 중앙광장에 일명 아수라로 통하는 담임이 기다란 몽둥이를 들고 이순신 장군처럼 서 있었고, 그 옆으로 손들고 꿇어앉은 몇몇 반 친구들 그리고 정신없이 도망가는 여학생들……. 아니 아수라는 여기 왜 나타났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찌해야 할지 아찔하기만 한 순간이었다.

예상대로 다음날 조례시간, 아수라의 반응은 심상찮았다.

"이거 누가 주동했노? 좋게 말할 때 일어서라."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고 곧이어 이를 깨는 목소리가 들렸다. 모두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은 실베가 용감하게 떡 일어서서말했다.

"쌤, 제가 했씸더, 그런데 주동한 기 아니고 주선을 했씸더."

"뭐라고, 이노무 자슥이 니 내하고 말장난하나. 이리 나와!"

아수라는 늘 왼쪽 팔목에 무겁게 차고 다니는 금색시계를 풀어 교탁에 올려놓고는 실베를 무차별 공격했다. 교실 한 바퀴를 돌고 또 돌고, 결국 실베는 고문실로 통하는 교무실 안 쪽방으로 끌려갔다. 그리고 그날 우리들은 무려 야자를 마치는 11시까지 책상을 들고 운동장을 뺑뺑 돌았다. 그때 우리는 제대로 쫄아 실베를 위한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했고, 실베가 유기정학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모두 같은 마음으로 비겁해졌다. 나 또한 한없이 그러했다. 그리고 그때 아수라는 어떻게 알고 나타났는지 지금도 여전히 궁금할 뿐이다.

그 트라우마 탓일까? 한 계절이 지나고 집으로 걸려온 전화 한 통, 아버지가 건네준 수화기 너머로 웬 여학생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려왔다.

"잘 지내나? 내 인숙인데 기억나나? 초등학교 때 같이 전교어린이회 활동을 같이 했던…… 혹시 이번 일요일 시간 나나? 얼굴 함 봤으면 하는데."

"으응, 그래 알지. 그런데 이제 우리 곧 3학년이 되는데…… 으음, 공부도 해야 하고 우리 학력고사 치고 대학가서 보면 안 될까?"

나는 서둘러 인숙이의 대답을 채 듣기도 전에 끊었다. 얼마나 고심하고 어렵게 전화를 걸었을까. 인숙이의 그 마음을 채 헤아려보지도 못했던, 간장종지만 한 배포를 가졌던 나였다.

학창시절, 그런 나의 모습 때문일까?

세필이를 볼 때마다 그때의 보상심리가 녀석에게 투영되어 그런지, 결코 밉지가 않았다. 그리고 은근 부럽기까지 했다.

"세필아, 오늘 니 와 그렇게 어깨가 축 처져 있노? 무슨 일 있나, 혹시 청춘사업 부도났나?"

"아입니더, 살짝 부도 위기가 찾아왔는데, 어제부로 일이 잘 해결되어 이제 한번 이겨내 볼라꼬예."

"맞다. 우리 세필이가 누군데, 힘내라."

이 말을 들은 녀석은 또 특유의 배배 꼬는 몸놀림으로 내 어깨를 툭 치고는 저 멀리 복도 끝으로 달아나고 있었다.

김요아킴 2003년『시의나라』와 2010년『문학청춘』으로 등단. 시집『행복한 목욕탕』『그녀의 시모노세끼항』등이 있다.

21년의 역사, 인천작가회의

이상실

민족문학작가회의 회원, 노동자문학회 회원, 교사문인협의회 참여 문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인 등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문인들의 문학단체인 '인천작가회의'가 1998년 12월 11일 출현했다. 문학창작지원을 위한 사업, 민족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문학적 사업,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교육을 위한 사업, 문학인의 권익옹호와 복지를 위한 사업 등을 펼치기 위해 창립된 인천작가회의가 어느덧 21년이 되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안팎으로 내홍도 겪었지만 작가포럼, 근대문학제, 황해문학생태기행, 찾아가는 문학, 작가와의 만남과 대화, 문학강연, 낭송제 개최로 창립 정신을 구현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인천작가회의는 『작가들』과 동인지를 발간하고 아시아문학낭송제,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AALA) 문학심포지엄, 우리 시대 작가와의 만남 등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 내실을 다지고 외연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인천작가회의 21년의 역사는 오로지 정의를 구현하고 진실을 인양하려는 서사이자 실천이었다.

문학행사

창립 이듬해 3월부터 각종 문학 행사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민담·민요·설화를 발굴하고 인천 도서 지역의 생태계를 조사하여 보존하는 방법을 고민하고자 〈황해문학생태기행〉을 필두로 〈작가포럼〉 〈월미 문학의 밤〉이 이어졌다. 2001년에는 〈전국민족문학인대회〉를 인천 국제공항청사 및 영종수련원에서 개최했다. 더불어 〈우리시대 작가와의 만남〉 〈작가와의 대화〉 〈문학강연회〉도 열렸다. 2008년에는 아시아 이주민과 함께하는 아시아문학낭송제를, 2011년은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AALA) 문학심포지엄 행사의 하나로 〈아시아 문학의 밤: 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래〉와 〈인천근대문학제: 생명, 생태 그리고 역사를 품은 굴업도〉를 개최하였다. 2013년 8월 24일~25일 강화도 일원에서 인천작가회의가 주최한 〈한국작가대회〉는 인천작가회의 역량을 널리

민족문학작가회의 인천지회 창립대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작가대회'에서는 〈2013 한국작가대회 인천선언: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되살리자!〉를 개최했다. 2015년 9월에는 '세계 책의 수도 인천'에 대한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인천아트플랫폼에서 '세월호 참사'를 주제로 작품 낭독회를 가졌다. 또한 콜트악기 부평 공장에서 〈현장으로 찾아가는 문학의 밤〉을 개최하는 등 참여 문학 활성화를 꾀하였다.

사회참여와 연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의견서〉를 관계 당국에 냈을 뿐만 아니라 〈성명서〉 〈제안서〉를 발표하는 등 부정의가 속출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응했다. 2005년에는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인천 시민사회단체 공동 의견서인 〈도시계획은 도시의 주민인 시민이 참여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를 발표했다. 또한 〈55주기 강화 민간인 학살 위령제〉 〈월미도 미군 폭격 희생자 위령제〉 〈인천지역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위원회〉 발족 등에 참여하였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기도 했다.

〈계양산 골프장 건설 반대 문화예술계 공동 선언서〉와 작가적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엄중히 규탄하는 〈선관위의 젊은 작가와 시인 137명 고발에 대한 인천작가회의 성명서〉 〈4대강 사업 반대 성명서〉 발표, 〈굴업도 오션파크 관광단지 개발 반대 10만인 서명운동〉도 전개하였다. 아울러 '인천작가회의'에서는 굴업도를 답사한 후 기관지인 『작가들』에서 '생명, 생태 그리고 역사를 품은 굴업도'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근대문학제'에서도 굴업도 개발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 낭송과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시대가 흘린 부산물에 아파하기도 했다.

발간물

본 단체에서 꾸준히 발행한 책은 문예지 『작가들』 및 시선집과 소설선집이 있다. 문예지 『작가들』은 창립 1년 만인 1999년 12월 15일 창간호(반년간지)를 발행한 이후 2004년 겨울 통권 11호를 내면서 계간지로 전환했고, 2019년 가을호(통권 70호)까지 나왔다. '깨어 있는 삶, 깨어 있는 문학'을 모토로 지방과 전국을 아우르는 문예지를 지향한 『작가들』은 문화예술위원회 2019년 문예지 발간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겨울호(통권 71호)는 '창간 20주년 특집호'로 나올 예정이다.

『작가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나온 앤솔로지는 총 16권이다. 인간과 자연, 분단과 이념, 절망과 희망, 노동현장, 시위현장, 인간의 욕망, 갑과 을, 죽음에 대한 형상화에 이르기까지 각 권에 수록된 작품들의 제재는 다채롭다. 시선집은 2006년에 출간된 『자연바다』(작가들)를 필두로 하여 『꽃이 핀다 푸른 줄기에』(작가들), 『세이한 고비』(작가들), 『새들이 숨을 만큼만』(열린작가), 『순간의 평화』(메이드), 『소사나무 숲』(메이드), 『빨강의 정점』(작가들), 『증폭』(인천작가회의 출판부), 『오지 않는 편지』(인천작가회의 출판부), 2017년 『불완전한 착지』(삶창)에 이르기까지 10권이었다. 소설선집은 2007년에 출간된 『오, 해피 데이』(작가들)가 제1호였고, 『로맨스 빠빠』(열린작가), 『그릴 수 없는 자화상』(인천작가회의 출판부), 『나와 관계하는 관계』(인천작가회의 출판부), 2017년에 나온 『그날 이후로』(삶창)까지 5권이었다. 2018년은 인천작가회의 창립 20주년을 맞아 인천작가회의 20주년 기념문집 『작가들의 길』(삶창)을 냈다. 기념 문집에는 시·소설·동화 그리고 수록작품에 대한 해설이 실렸다.

또한, 『인천작가회의 20년사』(인천작가회의 20년사 편찬위원회)가 지난해 나왔다. 373쪽 분량의 양장본으로 제작된 이 책은 '제1장 창립과 정립(1998년~2000년), 제2장 시련과 연대(2001년~2010년), 제3장 도전과 참여(2011년~2018년)'로 시대와 장을 구분하였고 편년체로 서술되었다. 화보는 별도로 게재했으며, 부록은 인천작가회의 연표·성명서 등 인천작가회의 20년 주요 발언·역대 집행부 명단·정관 등으로 채워졌다. 이러한 활동과 업적은 회원들의 호응과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지난 20년을 밑거름 삼아 문학 창작 지원을 위한 사업, 민족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문학적 사업, 문학교육을 위한 사업, 문학인의 권익 옹호를 위한 사업,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적극 펼치고자 한다.

이상실 2005년 『문학과 의식』으로 등단. 소설집 『월운리 사람들』 『콜트스트링의 겨울』, 장편소설 『미행의 그늘』이 있다.

서울본회

[새책]

시집
강영환 『쑥대밭머리』(책펴냄열린시), 김선주 『풀꽃으로 살고 싶어라』(문경출판사), 김씨돌 『그대 풀잎 비비는 소리 들었는가』(리토피아), 김안 『아무는 밤』(민음사), 김완하 『꽃과 상징』(시선사), 김왕노 『리아스식 사랑』(시선사), 김율도 『그대에게 가는 의미』(율도국), 김익두 『지상에 남은 술잔』(천년의시작), 김재석 『골목은 나무꾼 빈집은 동백 아가씨』(사의재), 김정숙 『나는 허정이라는 말을 좋아해』(천년의시작), 김정환 『자수견본집』(아시아), 김진수 『젓가락 대사』(선우미디어), 나병춘 『자작나무 피아노』(시선사), 박기섭 『키 작은 나귀 타고』(황금알), 박수빈 『비록 구름의 시간』(천년의시작), 박연준 『밤, 비, 뱀』(현대문학), 서동인 『동백주 몇 잔에 꽃이 피다니』(달아실), 성환희 『바람에 찔리다』(학이사), 여국현 『새벽에 깨어』(푸른사상), 오철수 『생명리듬』(흙살림), 오하룡 『모향 실향 그리고』(경남), 용환신 『부론, 그곳에서 읊다』(더페이퍼), 이명희 『빈 몸의 경지』(북치는소년), 이민호 『완연한 미연』(북치는소년), 이성목 『세상에 없는 당신을 기다리다』(천년의시작), 이영숙 『마지막 기차는 오지 않았다』(고두미), 이은규 『오래 속삭여도 좋을 이야기』(문학동네), 이중도 『사라졌던 길들이 붕장어 떼 되어 몰려온다』(천년의시작), 임동윤 『풀과 꽃과 나무와 그리고, 숨소리』(소금북), 장종권 『오늘이라는 낙원』(시선사), 정공량 『그리움』(시선사), 정일근 『저녁의 고래』(아시아), 정지윤 『어쩌면 정말 새일지도 몰라요』(창비), 진순분 『익명의 첫 숨』(발견), 하종오 『돈이라는 문제』(도서출판b), 허형만 『뒷굽』(시선사), 황인숙 『아무 날이나 저녁때』(현대문학).

소설집
공선옥 『은주의 영화』(창비), 박생강 『치킨으로 귀신 잡는 법』(걷는사람), 배지영 『근린생활자』(한겨레출판사), 임정연 『불』(청색종이).

장편소설
유중원 『차라리 피고인이 되고 싶다』(글누림), 윤성희 『상냥한 사람』(창비), 이김문홍 『감나무집 동백꽃』(해성), 김별아 『백범, 거대한 슬픔』(해냄출판사), 은희경 『빛의 과거』(문학과지성사), 이경희 『늙은 소녀들의 기도』(폭스코너), 최윤 『파랑대문』(현대문학), 전민식 『강치』(마시멜로), 정찬 『골짜기에 잠든 자』(문학동네).

기타
임헌영 산문집 『임헌영의 유럽문학기행』(역사비평사), 고영직 산문집 『인문적 인간』(삶창), 김홍성 사진에세이 『트리술리의 물소리』(다시문학).

[경조사]
강민 시인 별세, 김기홍 시인 별세, 박태순 소설가 별세, 오민석 시인 부인상, 이은래 시인 부친상, 최상해 시인 모친상.

[수상]
박철 시인 제16회 이육사시문학상 수상.

강원작가회의

[새책]
정석교 시집 『곡비』(리토피아), 이애리 시집 『동해 소금길』(시로여는세상).

[행사]
- 정석교 시인의 문학콘서트가 삼척 70~80에서 있었다.
- 이애리 시인의 시집 출판 기념으로 동해호텔에서 지역 문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남작가회의

[새책]
이성배 시집 『이어도 주막』(애지).

[수상]
이복규 시인 시집 『슬픔이 맑다』 (지혜)를 각색한 연극, 경남연극제 대상 수상.

[행사]
- 7월20일~21일. 경남작가대회와 『경남작가』 제35호 출판회 가짐.
- 8월 11일. 경남작가회의 사무실에서 3/4분기 정기 이사회 개최.

광주전남작가회의

[새책]
김희숙 동화 『숫자 없는 아파트』(가문비), 정윤천 시집 『발해로 가는 저녁』(달을쏘다), 김경윤 시집 『슬픔의 바닥』(문학들), 장정희 청소년 소설 『사춘기 문예반』(서유재), 김경희 소설집 『켄타우로스 날다』(문학들).

[수상]
이대흠 시인 제1회 조태일문학상 수상(시집 『당신은 북천에서 온 사람』).

[행사]
- 7월 20일. 입회 3년차 이내 신입회원 환영회(광주풍암 호수공원). 회원 50여 명이 참석하여 문학으로 우애 다지기.
- 8월 2일~3일. 제21회 섬진강 여름문학학교(전남곡성 강빛마을). 곡성군 관내 초중고생 100여 명 및 광주전남 작가 30여 명이 참석하여 심청 이야기 마을 견학, 문학교실, 백일장 등 진행.

대구경북작가회의

[새책]
이철산 시집 『강철의 기억』(삶창), 고영민 시집 『봄의 정치』(창비), 김성찬 시집 『운명은 나를 재촉하고 시련은 나를 움직인다』(사람), 이정연 첫 시집 『유리구슬은 썩지 않는다』(한티재).

[행사]
- 6월 30일. 〈대경작가 시선집〉 편집회의가 황구하 시인(편집장) 주재로 열림(영주).
- 7월 14일. 류근삼 유고시집 『꿈 속의 꿈』 발간 추모의 밤 열림(대구문학관).
- 7월 20일. 이철산 시집 『강철의 기억』(삶창) 출판기념회(달콤한 피아노).
- 8월 24일. 대경작가 〈여름문학제〉 및 『대경작가 시선집』 출판기념식 개최(대구문학관).

대전작가회의

[새책]
유진택 시집 『염소와 꽃잎』(푸른사상), 차승호 시집 『난장』(애지), 함순례 시집 『울컥』(역락).

[수상]
대전문학관 2019 시 확산 시민운동 작가선정(2019. 1~2019. 12) - 정성균, 정바름, 박권수, 박종빈 시인.

[행사]
- 7월 13일. 시민과 함께하는 북 콘서트 〈시처럼 아름다운 시인, 시보다 아름다운 시민(詩民)〉 “울컥, 난장에서 꽃으로 피다”(계룡문고 - 유진택, 차승호, 함순례 시인).
- 7월 27일. 〈창작의 미래〉 상반기 (문학강좌 “문학으로 소통하다”시리즈) 5차 “어린이 문학과 놀자!” (계룡문고 - 유하정 동시인, 이미숙, 이은정 시인 등).
- 8월 31일. 〈창작의 미래〉 상반기 (문학강좌 “문학으로 소통하다”시리즈) 6차 “이야기 극이 되고 노래가 되다” (공간 ‘구석으로부터’ - 김현정 평론가, 황재학, 권덕하, 이미숙, 김채운 시인 등).

부산작가회의

[새책]
신정민 『저녁은 안녕이라는 인사를 하지 않는다』(파란).

[경조사]
7월 30일. 조성래 시인 부친상(발인: 7월 30일).
7월 31일. 이재봉 평론가 장인상(발인: 7월 31일).

[행사]
- 7월 11일. 청년시선 창작 합평회.
- 7월 12일. 제66회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 톡톡. 정성환 시집 『당신이라는 이름의 꽃말』(문학의 전당), 안민 시집 『게헨나』(한국문연).
- 7월 26일. 오후 6시. 고 김중하 평론가 추모콘서트 개최(장소-요산문학관).
- 8월 9일. 제67회 시민과 함께하는 문학 톡톡. 안지숙 『데린쿠유』(산지니).

울산작가회의

[새책]
정소슬 시집 『걸레』 (작가마을), 김종원 시집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빛나는 별같이 살라하고』(시산맥사), 엄하경 시집 『내 안의 무늬』(현대시), 도순태 시집 『난쟁이 행성』(현대시).

[소식]
- 8월 9일. 울산작가회의 사무실 이전. 새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거리 31 3층. (회장 임 윤 010-2577-3038 사무국장 이수진 010-4800-7205)

인천작가회의

[새책]
이경림 시집 『급! 고독』(창비), 최경주 연작소설집 『사막의 모래바람』(삶창), 이상실 소설집 『콜트스트링의 겨울』(바람꽃), 계간 『작가들』 가을호(통권 70호)(다인아트).

[수상]
조정인 시인 ‘제14회 지리산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됨. 수상작은 ‘백년 너머 우체국’ 외 4편, 시상식은 9월 28일 함양문화예술회관. 이병국 시인·평론가가 한국작가회의가 수여하는 ‘내일의 한국작가상’ 수상자로 선정됨.

[행사]
- 8월 22일 ‘제4회 인천작가와의 대화’가 인천아트플랫폼 H동 인천서점에서 있었다. 초청작가는 이경림 시인, 조정인 시인.

제주작가회의

[새책]
『제주작가』 통권 65호(도서출판 심지), 양순진 시집 『노란 환상통』(자작나무카페), 김진숙 시집 『눈물이 참 싱겁다』(문학의전당), 김동윤 평론가 『문학으로 만나는 제주』(한그루), 김영숙 시조집 『발가락 낙관』(글상걸상).

[행사]
- 6월 6일. 4.3 문예소풍.
- 7월 27일. 제주작가회의 상반기 출판기념회 및 회원의 날 개최.
- 7월 29일~ 8월 3일. 2019 제주생명평화 대행진 ‘평화야 고치글라’ 참가.
- 8월 10일~ 8월 14일. 해외평화 문학교류-제주4.4, 베트남과 만나다.

충남작가회의

[새책]
정홍준 시집 『눈길』(애지), 이정록 그림책 『나무 고아원』(동심).

[행사]
- 8월 10일. 충남작가회의 이사회의 : 전국 작가대회와 금강유역 문학축전 준비.
- 9월 28일~29일. 부여에서 전국 작가대회 진행 (대전작가회의와 공동 주최).
- 10월 12일~13일. 공주대학교에서 2019 금강유역 문학축전 주최.

충북작가회의

[새책]
장문석 시집 『내 사랑 도미니카』(천년의시작).

[행사]
- 〈충북작가〉 여름호 출간 기념식 및 제25회 신인상 시상식 개최.
- 〈충북작가〉 겨울호 48호 편집회의.

고양작가회의 지부

[새책]
박남희 시집 『아득한 사랑의 거리였을까』(걷는 사람), 고양작가회의 『작가연대』 14호(들꽃).
문창길 시집 『북국독립서신』(들꽃세상) ‘3.1혁명 100주년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경기문화재단 문화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공모 선정.

[행사]
- 7월 15일. 고양포럼 참가(고양시 3기 신도시 건설계획의 바른 이해와 문제들).
- 7월 19일. 고양작가회의 월례회의.
- 7월 26일. 제32회 원로 및 중견작가 초청 문학강연회(정수남 소설가와 함께).
- 7월 29일. 문창길 시인 북국독립서신 시집 출판기념회 (뒤풀이 동송동 잣골).
- 8월 19일. 고양포럼 참가 (3.1 독립선언 100주년과 광복절).
- 8월 30일. 작가연대 제14호 출간 기념 및 고양작가회의 사무실 개소식.

부천작가회의 지부

[새책]
간호윤 서평 『사이비 2』(경진출판), 동화동인 동시집 『보고 듣다 얻은 열매』(시와동화), 구정혜 시집 『말하지 않아도』(시산맥), 황연옥 시집 『시인의 단추』(시와동화), 양정동 시집 『바람타고 날아간 풀씨』(가온).

[수상]
차태우 제8회 천강병 시낭송대회 은상 수상. 구미정, 양성수. 부천시 제8회 ‘시(市, 詩)가 활짝’ 전국 시 공모전 우수상 수상. 박명영 시집 정부공모 전자책 선정. 홍영수 고성 국제 한글디카시 공모전 당선. 임내영 한국 미소문학 문학상 본상 수상, 임내영 제9회 대한민국 독도 문예대전 특별상 수상.

[행사]
- 5월 3일~ 5월 6일. 작가와의 만남 (동화 , 시 , 수필, 소설, 평론) 및 사인회.
- 5월 5일. 부천시민 시조 백일장.
- 5월 29일.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운영 위원회 회의 (지부장 우형숙).
- 6월 16일. 제62차 가람 이병기문학관 문학기행.
- 6월 25일. 2019년 상반기 한국작가회의 부천지부 임원회의.
- 6월 29일. 하버드 대학교수 맥켄교수 초청 ‘시조의 세계화 행사’.
- 6월부터. 이탈리아 파브리아노 도서관 ‘60人, 이부천을 노래하다’ 시집 전시.
- 7월 3일. 수주문학제 문학단체 대표회의 부천지부장 우형숙.
- 7월~9월. 제19집 〈부천작가〉 연간집 원고 모집.
- 8월~10월. 동화 창작교실 강정규.
- 8월 20일. 시평 인문학 강의 이병렬.
- 8월 29일. 숨쉬는 사람책 읽기 강정규 편

순천작가회의 지부

[새책]
안준철 시집 『생리대 사회학』(푸른 사상), 박철영 시집 『꽃을 전정하다』(시산맥), 이원규 시집 『달빛을 깨물다』(시작시인선), 이상인 시집 『그 눈물이 달을 키운다 』(시작시인선).

[행사]
- 순천작가회의 순회 시화전 진행 중. (6월 순천 성가롤로병원 로비, 7월 순천시 평생 학습관, 9월 순천대 중앙도서관).
- 7월 12일. 시낭송 콘서트 ‘시의 틈으로 들어가고 싶다’(지노스 가든 레스토랑).

안동작가회의 지부

[행사]
- 7월 15일, 정기 합평회.
- 8월 10일, 이육사문학관 상주작가 프로그램 행사 참석, 강연-안상학.

한국작가회의 홈페이지(http://www.hanjak.or.kr) 내 ‘회원마당’ - ‘회원 새책’으로 가시면 출간하신 서적을 직접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사무처 소식

7월

2일	경의선 책거리 위탁운영공모 접수
4일	내일을여는작가 75호 편집회의
5일	2019년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 인터뷰심사
6일	교차언어낭독회 역:시, 제주-일본으로 날아가는 마음
8일	2019년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 대상 서점 발표
	2019 찾아가는 병영도서관 "문확행" 2사단 1연대 직할중대 방문
9일	2019년 상반기 회계감사
10일	2019년 7월 이사회 자료마감
13일	2019년 7월 이사회
15일	경의선 책거리 위탁운영공모 프레젠테이션
16일	2019년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
17일	2019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메일링
19일	문학주간 2019년 작가스테이지 신청 안내 메일링
	사무처 편지 8 발송
20일	내일을여는작가 75호 발간
22일	회보 120호 원고 마감
23일	삼성 해고자 고공단식 투쟁 한국작가회의 연대문화제 안내 메일링
24일	2019년 7월 신입회원 안내 메일링
25일	젊은작가포럼 총회
30일	제25회 전국고교생백일장 결과보고서 발송 (수신처:문화체육관광부)
31일	회보 120호 발간

8월

2일	민족민주열사추모연대 2020년 열사력 제작 참여 안내 메일링 (시분과)
5일	내일의한국작가상 후원 요청 메일링
6일	2019년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 교부확정
8일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한 문학인 성명 – '지금은, 꽃을 들고 저항한다' 발표 (사단법인 한국작가회의, 국제PEN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공동)
13일	아름다운작가콘서트 관련 회의
20일	제18회 내일을여는작가 신인상 마감
21일	2019 죽형 조태일 문학축전 안내 메일링
24일	2019년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서점 지원사업 강화도 현장 출장
27일	2019 신동엽 시인 50주기 전국문학인 대회 안내 메일링
	10월문학제 원고청탁 안내 메일링
29일	2019 찾아가는 병영도서관 "문확행" 제73보병사단 방문

피재현 안동지부 사무국장이 제작하여 재능기부 한 각 지회 현판들

후원 및 연회비 납부 현황

특별회비

권민경 (100,000)
박 철 (300,000)
유현아 (100,000)
윤석정 (100,000)
이종민 (100,000)
이태형 (100,000)
정은경 (500,000)
최지인 (100,000)

내일의한국작가상후원금

강민영 (100,000)
강형철 (100,000)
고명철 (100,000)
고증식 (100,000)
곽재구 (100,000)
구효서 (100,000)
김대현 (100,000)
김명남 (100,000)
김명철 (100,000)
김성규 (100,000)
김영주 (100,000)
류인서 (100,000)
박상률 (300,000)
박성우 (100,000)
박일환 (100,000)
서정오 (100,000)
신현수 (100,000)
안주철 (100,000)
양연주 (100,000)
유용주 (100,000)
유현아 (100,000)
이봉환 (100,000)
이설야 (100,000)
이종형 (100,000)
정도상 (100,000)
정란희 (100,000)
정원도 (100,000)
정철성 (100,000)
주영선 (100,000)
천수호 (100,000)
한수영 (500,000)
함순례 (100,000)
현기영 (200,000)
홍명진 (100,000)

광고후원금

(주)아시아문화 (550,000)
국립공원 설악산 사무소 (1,000,000)
바노바기 성형외과 (550,000)

특별후원

김지영 (4,440,400)
허윤희 (220,000)

재능기부

안동지부 사무국장
피재현 (현판 제작 기부)

한국작가회의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CMS 납부를 비롯하여 회비를 입금해주신 회원님들과 특별회비 및 후원 광고 등으로 정성을 모아준 모든 분들께 큰절 올립니다. (사)한국작가회의는 회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큰 사랑으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인단체인 한국작가회의는 회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정성과 사랑을 받들어 지구촌을 대표하는 문인단체로 거듭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따뜻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회비와 관련하여 성함이 빠졌을 경우 사무처로 연락주시면 정정하겠습니다.(02-313-1486~7)

* CMS 납부 신청 : 홈페이지 상단 ● CMS 납부 신청
* 일반회비 납부 계좌 : 우리은행 845-05-000551 / 예금주 (사)한국작가회의
* 특별회비 납부 계좌 : 우리은행 1005-82-113278 / 예금주 (사)한국작가회의

회비 납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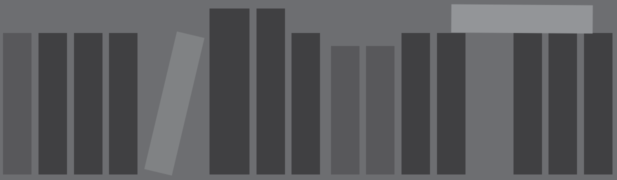
2019.7.~8.

가백현
강경아
강경희
강규
강기원
강기희
강남률
강덕환
강동수
강동우
강무홍
강미정
강민경
강민구
강민숙
강민영
강병철
강봉수
강성남
강성애
강성원
강세환
강수경
강순
강시현
강애나
강영
강영주
강영환
강유정
강윤미
강윤화
강은미
강정이
강종원
강진
강현숙
강형철
강호정
고경숙
고경자
고광률
고광식
고명섭
고명철
고산돌
고성만
고영
고영민
고영서
고영직
고우란
고운기
고원
고은규
고은진주
고인숙
고인환
고증식
고찬규
고창근
고철
고희림
공광규
공정배
곽민수
곽옥미
곽재구
곽형덕
구자명
구중서
권경아
권근화
권대웅
권덕하
권미강
권민경
권상진
권서각
권선희
권성우
권성은
권순
권순긍
권순자
권순진
권여선
권영임
권오영
권오훈
권위상
권정수
권정현
권지숙
권지영
권지예
권지현
권채린
권태주
권혁소
권혁재
권현형
권희돈
금미자
금은돌
길상호
김건영
김경
김경순
김경식
김경윤(소설)
김경윤(시)
김경인
김경후
김경희
김광선
김광원
김광철
김규중
김근
김근희
김금래
김금희
김기택
김나정
김남규
김남극
김남길
김남숙
김남영
김남일
김다희
김대갑
김대술
김대현
김동수
김동승
김동연
김동윤
김동철
김동현
김동환
김두녀
김두안
김란
김륭
김리라
김리하
김림
김명
김명기
김명남
김명신
김명우
김명은
김명인
김명지
김명철
김명환
김명환
김문
김미령
김미승
김미정
김미혜
김미희
김민
김민서
김민숙
김민정(경기)
김민정(부산)
김민주
김민형
김민호
김민효
김바다
김바다
김백겸
김별아
김병용
김병택
김보람
김보영
김봄
김사람
김사이
김산아
김삼환
김상영
김상우
김상출
김상혁
김상현
김서령
김서정
김석교
김석영
김선
김선영
김선재
김선주
김선향
김성규
김성우
김성장
김성중
김세인
김소현
김솔
김송포
김수목
김수복
김수열
김수온
김수우
김수정
김순선(대전)
김순선(제주)
김승환
김승희
김시언
김신숙
김신우
김신혜
김안
김양호
김양희
김어영
김여옥
김연미
김연수
김연종
김연희
김영
김영곤
김영권
김영란
김영미
김영범(시)
김영범(평론)
김영삼
김영숙
김영애
김영언
김영주
김영찬
김영춘
김영희
김옥진
김완
김완하
김왕노
김요섭
김요아킴
김용락
김용만
김용매
김용택
김우남
김우출
김유미
김유진
김유철
김윤곤
김윤배
김윤태
김윤현
김윤화
김윤환
김은경
김은령
김은상
김은옥
김은주
김은중
김응
김응교
김이강
김이은
김이정
김인숙
김일연
김일영
김일하
김자연
김자현
김자흔
김재근
김재영
김재용
김재홍
김재환
김재훈
김저운
김점용
김정숙(시)
김정숙(시조)
김정신
김정애
김정연
김정원
김정주
김정호
김정환
김정희
김젬마
김종경
김종성
김종숙
김종연
김종원
김종인
김종호
김종훈(시)
김종훈(평론)
김주대
김주태
김준현
김중일
김지란
김지선
김지섭
김지윤
김진
김진경
김진돈
김진문
김진수
김진숙
김진환
김진희
김창규
김창균
김창집
김창희
김채운
김청미
김추인
김춘리
김태경
김태선(소설)
김태선(평론)
김태수
김태철
김태형
김택희
김하경
김하돈
김하연
김학산
김학중
김해림
김해자
김향미
김현
김현곤
김현숙
김현영
김현정
김현주
김형경
김혜정
김호성
김홍성
김홍신
김홍주
김홍춘
김화숙
김효숙
김효은
김희식
김희업
김희우
김희정(대전)
김희정(서울)
나기철
나민애
나병춘
나비연
나여경
나정욱
나해철
남기택
남상순
남송우
남승원
노은희
노지영
노현수
도순태
류경희
류근
류명선
류미야
류성훈
류수연
류신
류재만
류정환
류지남
리산
마린
마선숙
마윤제
문계봉
문동만
문선정
문신
문영숙
문재호
문정영
문창갑
문태준
문현미
민구
민왕기
박경분
박경장
박경희
박관서
박교탁
박구경
박권수
박권숙
박규현
박근태
박금주
박기능
박기섭
박남준
박노식
박덕규
박덕선
박도
박동억
박두규
박래여
박명규
박명숙
박몽구
박미경
박민규
박민영
박병례
박병성
박상률
박상봉
박상준
박생강
박석구
박석무
박석준
박설희
박성우
박성한
박세환
박소란
박소연
박소영
박소원
박수빈
박수연
박순호
박승
박승민
박승자
박시교
박시우
박시하
박신규
박아연
박연숙
박연옥
박영민
박예분
박완섭
박우담
박운식
박월선
박유진
박윤영
박은주
박은중
박이정
박인
박인하
박인혜
박일구
박일환
박재연
박재웅
박정애
박정원
박정윤
박정은
박제영
박종관
박종국
박종국(시)
박종헌
박종희
박주하
박준
박지웅
박진형
박찬세
박철
박철영
박탐유
박태주
박필헌
박학봉
박한
박한라
박해석
박현주
박형권
박형숙
박형준
박혜상
박혜선
박혜영
박혜지
박홍점
박효명
박흥순
박희정
방남수
방현석
배경희
배교윤
배명희
배봉기
배선규
배성호
배수연
배우식
배지영
백가흠
백건우
백낙청
백남이
백무산
백민석
백상웅
백애송
백은선
백은하(소설)
백은하(어청)
백정희
범현이
변현상
복효근
봉윤숙
부희령
사윤수
서광일
서동인
서성란
서수찬
서애숙
서영식
서영인
서영채
서은혜
서재진
서정오
서정원(소설)
서정원(시)
서정택
서정홍
서정화
서진연
서홍관
서효인
서희
석벽송
석연경
석형락
선석현
선안영
설하한
성군경
성동혁
성배순
성백선
성백술
성석제
성선경
성향숙
성희직
손병현
손순미
손승휘
손월빈
손정수
손정순
손지태
손택수
손홍규
송경동
송광근
송광룡
송명숙
송명원
송방순
송승언
송승태
송애경
송언
송염만
송은숙
송정섭
송진권
송태웅
송호필
신경림
신계우
신기훈
신남영
신단향
신덕룡
신미나
신상진
신성률
신수현
신언관
신연수
신연호
신윤서
신정민
신철규
신현수(시)
신현수(어청)
신현옥
신혜진
심윤경
심지현
안덕훈
안도현
안미선
안상학
안성길
안성호
안영선
안영실
안오일
안은주
안이희옥
안익수
안재성
안종관
안종수
안주철
안지은
안태운
안학수
안현미
안희연
안희정
양곡
양기창
양문규
양상호
양소은
양안다
양애경
양연주
양영아
양용직
양원
양은숙
양재성
양정규
양지숙
양진기
양진오
양혜영
어향숙
엄경희
엄광용
엄미경
엄우흠
엄원태
엄진희
여국현
여성민
염무웅
염민기
염창권
오광석
오도엽
오명선
오미경
오미옥
오민석
오선덕
오성인
오성일
오세혁
오수연
오승희
오연경
오영자
오유리
오인덕
오인태
오종우
오진희
오창은
오춘옥
오태호
온형근
용환신
우대식
우덕상
우애령
우은숙
우혁
우현옥
우형숙
원동우
원명희
원종국
원종찬
원종태
유경숙
유금오
유대형
유문선
유병록
유수연
유순
유순덕
유순예
유승도
유시연
유시춘
유안진
유영갑
유영곤
유영진
유용주
유종
유중원
유채림
유하정
유현숙
유현아
유형수
육근상
윤경덕
윤관영
윤동수
윤동재
윤동희
윤범모
윤병주
윤석위
윤석정
윤석홍
윤성학
윤순례
윤영수
윤영전
윤영천
윤요성
윤인구
윤일균
윤재걸
윤중목
윤지관
윤지영
윤천수
윤해연
은승완
은이결
이가을
이강산
이경덕
이경란
이경림
이경석
이경수
이경자
이경재
이경호
이경희
이궁로
이권
이규배
이규원
이근배
이금란
이기순
이남순
이남희
이다빈
이대의
이대흠
이덕규
이도흠
이동식
이동욱
이두의
이리영
이만교
이면우
이명우
이명원
이명윤
이명인
이명행
이명희
이묘신
이문복
이문숙
이미숙(시)
이미숙(소설)
이민호
이범근
이병국
이병룡
이병률
이병일
이병철
이병초
이복현
이봉환
이상국
이상번
이상섭
이상실
이상인
이상호
이선
이선균
이선식
이선영
이선희
이설야
이성주
이성진
이세경
이소암
이소연
이송우
이수진
이수풀
이숙현
이숙희
이승은
이승철
이승희
이시백
이시은
이안
이어진
이언주
이여원
이연희
이영광
이영숙
이영애
이영주
이영환
이영희
이옥근
이용석(시)
이용석(소설)
이용임
이용준
이용한
이용헌
이운진
이원규
이원오
이원익
이원준
이원화
이월춘
이위발
이유명호
이윤
이윤경
이윤학
이은규
이은래
이은선
이은주
이응인
이이후
이인범
이인성
이인호
이장근
이재무
이재복
이재본
이재연
이재웅
이재윤
이재은
이재훈
이정록
이정민
이정섭
이정연
이정현
이정훈
이정희
이종민
이종수
이종숙
이종암
이종인
이종하
이종형
이주언
이주희
이준옥
이준희
이중도
이중현
이지
이지담
이지엽
이지호
이진수
이진욱
이진행
이진희
이찬
이춘길
이춘우
이태정
이태형
이하
이하율
이학영
이한열
이해선
이행자
이향안
이향지
이현수
이현식
이현정
이현호
이혜경
이혜수
이호경
이호빈
이호석
이홍사
이화경
이화영
이화우
이후경
이희섭
이희종
인은주
일곱째별
임경묵
임경섭
임곤택
임규찬
임근희
임내영
임덕연
임동윤
임동확
임두고
임미리
임백령
임봄
임서상
임성구
임성용(시)
임성용(소설)
임수빈
임수현
임술랑
임승유
임승훈
임영봉
임영천
임윤
임재정
임정연
임정옥
임정자
임정화
임종철
임철우
임헌영
임혜라
임형신
임홍배
임후남
임희구
장경식
장대송
장무령
장문석
장상관
장석남
장성규
장성욱
장세정
장세현
장수라
장시우
장영복
장영춘
장옥근
장용철
장우원
장유리
장유정
장은영
장이엽
장이지
장인숙
장재원
장정환
장정희
장주식
장지혜
장진기
장진영
장철문
장현숙
전남용
전대환
전동균
전민식
전병철
전비담
전성태
전성호
전영관
전영규
전영주
전욱진
전인식
전점석
전지열
전해수
전호석
전홍준
정가일
정강철
정기석
정남영
정노윤
정대호
정도원
정동진
정라헬
정란희
정명자
정미
정미영
정미희
정민나
정범종
정병근
정복여
정봉렬
정석봉
정선호
정성채
정세훈
정소성
정소슬
정수경
정수자
정순자
정승재
정승희
정안면
정애란
정양주
정연승
정연홍
정영길
정영주
정옥선
정와연
정완희
정용국
정우련
정우영
정원도
정유경
정윤옥
정은경
정은수
정이현
정인섭
정일관
정재은
정재훈
정종화
정지아
정지원
정지윤
정지은
정지창
정진
정진혁
정창근
정철성
정철훈
정하선
정현옥
정현우
정혜경
정혜주
정호승
정홍수
정훈교
정희성
조갑상
조기조
조달곤
조덕자
조동길
조동범
조명
조명숙
조문경
조미녀
조미진
조미희
조삼현
조선희
조성국
조성래
조성면
조성순(시)
조성순(평론)
조수경
조숙
조숙향
조영옥
조용미
조용숙
조윤진
조율
조은덕
조인선
조재도
조재형(경북)
조재형(전북)
조정
조정애
조정인
조정환
조진태
조태봉
조태진
조해진
조향미
조현설
조현숙
조혜경
종정순
주명숙
주석희
주선미
주수자
주하림
지성찬
지창영
진란
진보경
진순분
진순희
진연주
진은영
진준섭
차영호
차옥혜
차창룡
채길순
채명룡
채상근
채인숙
채정은
채지원
채향옥
채현선
천수호
천양희
천재강
천희순
최강민
최경주
최광임
최교진
최금왕
최금진
최기순
최기우
최기종
최동현
최두석
최명진
최미정
최백규
최법매
최병해
최상해
최석기
최성문
최성수
최수철
최승린
최승필
최연식
최예원
최예지
최원식
최유성
최은미
최은숙
최은희
최인석
최일남
최자웅
최장락
최정희
최종득
최지애
최지인
최진석
최진영
최창근
최태랑
최필남
최현규
최현우
최형미
최형심
최형태
탁명주
태기수
태재명
표명희
표문순
표성배
피재현
하명희
하병연
하봉채
하성란
하재영
하재청
한기욱
한만수
한명원
한병준
한상순
한상준
한성희
한수영
한승헌
한영수
한용국
한창훈
함돈균
함민복
함순례
허광봉
허연
허영선
허영옥
허은실
허은희
허의행
허장무
허정분
허종열
홍경희
홍관희
홍기돈
홍명진
홍미자
홍사성
홍새라
홍순영
홍양순
홍영수
홍용희
홍은택
홍인기
홍일선
홍철기
황경란
황구하
황국명
황규관
황상순
황상희
황선만
황선열
황성규
황성일
황시운
황연진
황영진
황은덕
황은주
황인산
황인찬
황재학
황정숙
황종권
황주경
황지영
황현진
황희수
휘민

(1,325명)

창문 하나만 잘 닦아도 집 전체가 빛납니다. 창문 하나만 잘 닦아도 길 전체가 빛납니다.

당신의 창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산 큰숲 사람의 마을 은평!

마음의 창으로 빛나는 문학 도시로 새롭게 가꿔 갑니다.

북한산큰숲,은평 은평구